

생활 속의 실천—수질오염 줄이기①

음식찌꺼기 안버리기, 비누 쓰기,
폐식용유로 가정에서 비누 만들기



권 미 혁

옛 어른들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는 음식보다 공기, 식수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약수’를 드시고 좋은 물을 찾아 골라 마셨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현실은 맑은 물을 자랑하던 것은 옛일이 되고 돈주고 식수를 사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모두가 인간들이 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물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면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생활하수 ②공장폐수 ③축산물 분뇨
- ④가두리 양식장 오염 ⑤식물재배 농약
- ⑥간척지의 오염 ⑦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오염 등.

이 중 가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오염원이 ‘생활하수’이다. 그러므로 가정주부, 일반인들이 수질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은 바로 이 ‘생활하수’를 덜 오염시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생활하수는 흔히 우리가 버리는 오염된 물, 음식찌꺼기, 세제 등을 말한다. 수질오염원의 60~70%가 생활하수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양에 있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질오염의 주범=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라는 공식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의 경우 양은 많지만 그 농도가 매우 옅다. 또한 한 집에서 방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 가구당 조금씩만 줄여도 그 양은 많이 줄 수가 있다.

반면 공장에서 방출하는 폐수나 골프장에서 흘러보내는 농약의 경우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여 그 독성이 엄청나며 한 기업에서 방출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양적 비교로는 젤 수 없는 해악이 된다.

때문에 수질오염의 책임을 개개 가정에만 돌리지 말고 정부나 기업은 보다 큰

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수질오염 줄이기 실천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자.

①음식찌꺼기 줄이고 안버리기 ②변기 세척제 안쓰기 ③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등이 있겠다.

1. 음식찌꺼기 줄이고 안버리기

과거에는 먹고 버린 음식은 동물의 사료로 쓰거나 퇴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를 그대로 버림으로써 심각한 쓰레기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에선 ‘디스포자’라고, 음식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에 그냥 흘려버리는 기구를 사용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때문에 우선 음식찌꺼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수구에 음식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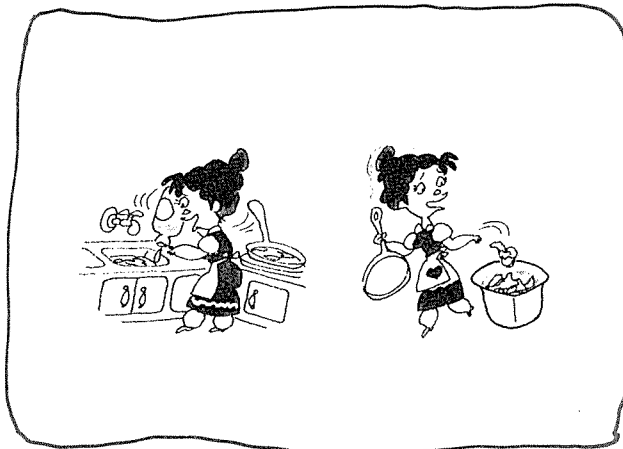
꺼기를 그냥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디스포자를 쓰지 말아야 한다. 디스포자를 쓰는 가정이 있으면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폐유나 라면국물 등의 액체식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휴지나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해야 한다.

2. 변기 세척제 안쓰기

흔히들 편하다는 이유로 쓰는 “변기세척제”는, 정화조에 살고 있는 분뇨를 분해하는 균에게 영향을 미쳐 제대로 분뇨가 분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가능한 한 솔에 비누를 묻혀(합성세제가 아닌) 변기를 청소하고 변기세척제는 쓰지 말도록 한다.

또한 정화조를 1년에 1회정도 청소하여 오염된 분뇨가 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최근들어
음식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에 그냥
흘려보내도록 하는
“디스포자”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졌다.

3.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왜 합성세제를 사용치 않고 비누를 써야 하는지는 다음 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 호에서는 쓰다버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법을 소개함으로써, ①폐식용유가 식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②비누를 씌으로써 합성세제의 사용을 막으며 ③버리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어보고자 한다.

음식찌꺼기 중에서도 폐식용유는 수질을 더욱 오염시킨다. 즉 된장국 반대접(약 200ml)을 그냥 물에 흘려보냈을 경우 수질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은 4.7통, 마요네즈 한숟갈(약 10ml)의 정화에는 물 8.0통, 오뎅국물 한 대접(약 500ml)의 정화에는 물 25통인데 비해 사용하고 남은 기름 한

대접(약 500ml)은 물 330통이 있어야 정화가 가능하다. 즉 300ml들이 가정용 목욕조 330개 분량(10만l)의 물이 필요한 것이다.

쓰고 난 식용유를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낼 경우 버려진 기름이 막을 형성하여 산소공급을 차단하므로써 수질정화를 어렵게 만든다.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흘러들어간 폐식용유는 “활성오니(분해 미생물이 포함된 진흙)”의 정화능력을 떨어뜨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어업에 피해를 주며 정수처리 비용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면 고체비누는 물론 가루비누, 액체비누, 전신 세척비누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폐식용유를 이용해 비누를 만드는 곳은 ‘협성생산 공동체’라는 곳이다. 이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나 휴지 등을 만드는 일은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해 방지 운동이다.

곳에서는 주부들이 모아 준 식용유를 이용해 폐식용유, 가성소다, 탄산소다만을 원료로 해서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등을 넣지 않고 휴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폐식용유가 많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아파트나 이웃끼리 폐식용유를 모으는 실천을 할 사람들은 플라스틱병(예 : 음료수 PET병 등. 유리병은 운송 도중 깨질 염려가 있음)에 모았다가 ‘여성민우회’(전화번호 : 325-7057, 8)로 연락하면 민우회에서 수거하여 협성 생산공동체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참고로 협성생산공동체의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오금동 321-17, 전화번호는 02)381-3213이다.

가정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 비누를 만드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가성소다(양젓물) 160g을 물 0.7ℓ에 충분히 녹인다.

②여기에 폐식용유 0.9ℓ를 천천히 부으면서 나무주걱으로 젓는다.


③30분 정도 저으면 차츰 뽁뽁해지는데 이것을 빈 우유팩 등에 부어 3일 정도 굳

기름 한대접(약 500ml)을 그냥 버렸을 때,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10만ℓ의 물이 필요하다.

힌다.

비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①의 과정을 하는 동안 플라스틱 통 두꺼운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이 얇을 경우 양젓물을 견디지 못하고 뚫어지는 수가 있다. 또 마지막에 굳힐 때 큰 덩어리로 굳으면 작게 떼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떼어서 굳힌다. 가끔 색깔있는 휴지통에 만들 경우 색이 우러나오는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할 것.

계량저울을 사용하여 위에 적은 비율로 식용유양에 따라 조절하여 만들면 된다.

올해는 한번 아파트나 주택의 이웃집끼리 모여 비누도 만들어보고 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어떨지. 

〈필자=여성민우회 노원·도봉지회회원〉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

〈보건사회부〉